

말랄라의 파키스탄 여성 교육 운동에 대한 의미 탐색

유성상* · 천선화**

요약

본 연구는 세계 평화를 진작하는데 있어 201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의 여성 교육권 옹호활동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이것이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제안하는 시사점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말랄라가 활동했던 파키스탄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교육적 상황을 조명하고, 말랄라의 저서 및 강연문 등의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있어 말랄라의 교육운동과 활동이 갖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말랄라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치적 상황과 빈곤, 여성 교육을 탄압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속에서도 여성의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여성 학교 교육의 증진과 개발협력에 있어서 교육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말랄라의 교육 운동은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종교, 정치, 문화적 갈등 및 국제사회의 교육개입 시기와 정도, 주체에 대한 다면적인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또한, 당시 외부 국제사회가 보여준 무력함과 대조적으로, 말랄라와 주변 지지자들은 보다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시민 사회의 대응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말랄라에 대한 파키스탄 내부 비난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말랄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서서히 물들어가던 파

*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키스탄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비판적인 눈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저항했다. 그녀의 교육권 옹호 운동은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한 개발협력 내 교육분야의 중요성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노벨평화상, 말라라, 파키스탄, 이슬람, 여성 교육권, 교육개발협력

I. 서론

2014년 10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노벨상 위원회는 카일라시 사트야르티(Kailash Satyarthi)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이후 ‘말랄라’) 2인을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자로 발표하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카일라시 사트야르티는 “간디의 전통을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아동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말랄라는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초월하여 인권으로서의 권리, 특히 여성의 교육적 권리를 향상하고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¹⁾ 이 둘의 이러한 인권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실천은 자국의 교육에 대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뛰어넘어, 국제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 특히 공동체를 포함한 국가의 발전에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로서의 교육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이들의 실천적 교육

1) Den Norske Nobelkomite.(2014). “The Nobel Peace Prize for 2014”.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http://www.nobelprize.org/nobel_prizes/peace/laureates/2014/press.html(2015년 4월 27일 접속)

운동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것은, 교육을 통한 개발에의 접근이 전 지구적인 모순과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인식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벨 평화상이 매년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국가간 형제애를 강화하고, 군대를 없애거나 감축하며,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최고의 업적을 낸 자”²⁾에게 수여된다는 점에서, 카일라시 사트야르티의 아동 권리 증진과 교육운동에의 평생에 걸친 헌신과 말랄라의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여성의 교육권 옹호활동은 세계평화에 교육이 갖는 의미를 새삼 강조한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특별히 파키스탄의 10대 여성교육운동가 말랄라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개발의 목표이자 곧 수단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랄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 정권의 치하에서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각종 인터뷰 및 글 기고를 하다 머리에 총격을 받았으나 기적처럼 살아났다. 그러나 파키스탄 내에는 아직도 말랄라의 교육 운동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남아있다. 심지어 노벨상 수상이후 시기인 2014년 12월 16일 말랄라를 반대하는 탈레반 대원 7명이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학교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써 학생과 교사를 포함, 135명이 숨지고 12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정부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탈레반의 학교 테러를 강하게 비판했다.³⁾ 이러한 그녀의

2) “Nobel Peace Prize”, *The Oxford Dictionary of Twentieth Century World History*

3) 조선닷컴. (2014). “파키스탄 학교 테러 탈레반 반군 전원 사살... 사망자 135명”. 중앙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7/2014121700997.html (2015년 4월 27일 접속)

활동은 굳이 노벨평화상이라는 상징적인 수상을 매개하지 않더라도,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녀의 용기 있는 활동들은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호칭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최초의 교육운동가 수상자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게 된다. 즉, 교육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국제 사회가 인정한 상징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녀의 활동이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큰 의미를 던져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랄라의 교육 운동의 과정과 의미, 국제개발협력의 교육분야에 던져 주는 시사점을 적절하게 논의한 연구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말랄라의 여성 교육 운동이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말랄라가 활동했던 파키스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교육적 상황을 조명하고, 말랄라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주요한 방법으로 삼아, 말랄라의 저서 및 강연문 등을 분석했다. 말랄라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나이의 소녀로서 향후 교육운동에 있어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본 연구는 미래적 비전에 관한 논의 보다 노벨평화상으로 평가된 그녀의 활동이 현재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던져주는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녀와 그녀의 활동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긴장과 이슈들이 좀 더 현실감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과 사회적 맥락을 연계하는 실증적이고 참여적인 연구로 인하여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파키스탄의 정치, 사회적 배경

1. 정치 외교적 배경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경계부분에 있으며 남아시아에 속해 있다. 파키스탄 동쪽에는 인도, 북동쪽에는 중국, 서쪽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이 위치해 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파키스탄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정치적 역사를 거쳤다. 종교적 이유로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했으나, 이후로도 인도와 3차례 걸린 전쟁을 치렀다. 또한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하면서 현재는 서파키스탄만 남게 되었다. 이후 줄피카르 알리 부토가 새 헌법에 따라 총리로 선출되면서 군정 시대가 종식된 듯 보였으나, 1979년 무하마드 지아 울 하크 장군이 쿠데타로 부토 총리를 사형시킨 후 정권을 잡았다. 이후 이슬람 세계 최초의 여성 총리 베나지르 부토가 선출되었으나 1990년, 1999년 연속 쿠데타가 발생하고, 망명 끝에 다시 돌아온 베나지르 부토가 2007년 선거를 앞두고 폭탄 테러로 사망하는 등 잦은 군사쿠데타와 테러, 군부 독재로 파키스탄은 심각한 국내 정치 불안을 겪었다.⁴⁾

파키스탄은 원래 미국과 이슬람 형제국가인 아프가니스탄 및 주변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교를 펼쳐왔다(조성권·장노순, 2011). 미국은 1993년 소말리아, 수단에서 미군을 공격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오래 전부터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96년부터 탈레반 정권의 보호 아래 아프간에 숨어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2001년 9월 11일 테러 대참사가 벌어

4) 위키백과, “파키스탄의 역사”. <http://ko.wikipedia.org> (2015년 4월 27일 접속)

지자 미국은 곧바로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덴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그해 11월 오사마 빈라덴을 색출한다며 탈레반을 상대로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다.

초기 파키스탄은 미국의 파키스탄 영공 통과 및 비행장 사용을 허락하거나 탈레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소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했다(말라라·램, 2013: 104). 그러면서도 ISI를 통해 탈레반 전사를 무장시키고 그 지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이슬람 세력에 대한 지원도 멈추지 않았다(전게서: 105). 그러나 무샤라프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겠다고 동의하고 FATA에 정부군을 직접 파견했으며(전게서: 151), 이 대가로 미국의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제재 철회와 연평균 1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 기치를 드높이며, 대정부 및 대미국 저항군으로 참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파키스탄 내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급증하여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축출되고 탈레반 지도자 및 오사마 빈라덴이 동부 파키스탄 접경지대로 피신하면서, 미국 무인폭격기가 파키스탄까지 공습하여 무고한 민간 파키스탄인이 살상당했다(조성권·장노순, 2011). 이로서 파키스탄에서는 거센 반미정서가 일었다.

2. 사회 경제적 배경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브라질에 이어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펀자브인, 파슈툰족, 신드족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로서 국민의 대부분

이 이슬람교를 믿으며, 75%의 수니파, 20%의 시아파 외에도 다양한 이슬람 종파가 존재한다. James Spain(2009)은 이들이 자부심이 강하고 복수를 중요시하며, 매우 강인하고 투쟁적인 전사들이지만 공손한 편이라고 표현했다.

이슬람은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는다. 이슬람 세계에서 현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를 함께 보는 제도에 속해 있다. Herbert Kane(1978)은 “이슬람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와 같은 그런 것이 없다”고 했으며, Freeland Abbott(1968) 또한 “이슬람은 종교 그 이상이다. 그것은 삶과 정치제도의 완전한 법전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라고 언급했다(p. 181). 이런 유대감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이며, 그만큼 이슬람교는 파키스탄인들의 정신 및 일상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미국 국무부 산하의 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파키스탄을 현재 미국 정부에 의해 종교 자유 침해 ‘특별 관심 국가’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로 규정했다.⁵⁾

5)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 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가 발표하는 2013년 연례 국제 종교자유보고서(Annual Report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미국 정부에 의해 현재 종교 자유 침해 ‘특별 관심 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에 선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 중 최악의 종교 자유 침해 국가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면서,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을 다시 ‘특별 관심 국가’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파키스탄 정부가 기독교인과 힌두교인 그리고 이슬람 소수 종파와 같은 소수 종교인들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정부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 종교간 충돌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미국 정부에게 파키스탄을 ‘특별 관심 국가’로 선정할 것을 주문하여 왔고, 지난 2012년 보고서에서도 파키스탄을 추천했지만 미국 국무부는 파키스탄을 ‘특별 관심 국가’로 지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유일한 이슬람 국가로서 매우 잘 훈련된 군대 및 다량의 군사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8위의 국방력, 세계 12위 군사력을 지닌다. 파키스탄은 이슬람협의기구,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8개 개발도상국, G20 개발도상국, 경제 협력기구의 창립국이다. 또한 UN, 영국연방국, 국제무역기구, 상하이 협력기구, G33 개발도상국, 77개 개발도상국 연합, 미국의 주요 비나토동맹국(major Non-NATO Ally)이기도 하다(리즈완 · 전면호, 2009).

그러나 파키스탄의 2014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39위, 인간개발지수(HDI)는 세계 146위로 파키스탄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아직 매우 열악하다.⁶⁾ 2007년에 수집되어 2013년 발표된 UNDP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다차원적 빈곤 지수(MPI⁷⁾)는 남아시아 지역에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록 방글라데시의 다차원적 빈곤 인구 비율은 파키스탄보다 높았지만 박탈감의 정도는 파키스탄이 더 높았다(UNDP, 2013).

III. 파키스탄의 교육: 개관과 이슈

1. 파키스탄의 교육체제

파키스탄의 교육은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초등교육(1~5학년), 중등

정하지 않았다.

6) Wikipedia. "Pakistan" (2015년 4월 28일 접속), <http://en.wikipedia.org/wiki/Pakistan>

7) MPI는 다차원 빈곤 인원수와 각자의 다차원 빈곤 가정이 경험하는 평균 박탈 수의 결과로서, 그들의 빈곤한 정도를 나타낸다.

교육(6~8학년), 고등교육(9~10학년), 중간과정(11~12학년), 그리고 졸업과 석박사 과정인 대학교육이 있다. 모든 대학교육은 지자체의 책임이다. 연방정부는 대부분 학교의 인가, 교과과정 발전 및 연구자금 조달을 지원하나, 정부의 교육 재정이 부족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법적으로 초등교육은 모두에게 무료이며 의무교육이나, 오직 5세 이상 소년들 70%, 2.5세 이상의 소년들 60%만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한국의 18~23세 학생들의 당시 고등교육률이 68%였는데 비해 파키스탄의 18~23세 학생의 고등교육률은 고작 2.9%에 불과했다. 1991년까지 파키스탄에는 오직 2개의 사립대학교만이 있었다(리즈완 · 전면호, 2009). 교육분야에 쓰이는 공공 지출이 GDP의 고작 2.1%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결코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낮은 재정 지원으로 공립학교 상황 또한 열악하여 건물이 없는 학교가 약 11%, 식수가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약 34%, 전기가 제공되지 않는 학교가 약 60%에 이르렀다.

UNESCO (EFA GMR, 2012)에 의하면 아직도 파키스탄의 교육 상태는 그리 나아지지 못한 듯하다. 특히 2008~2009년 파키스탄 연방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전체 문맹률은 57%이며 남성의 문맹률은 67%인데 비해 여성은 45%로 그 차이가 컸다. 아직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파키스탄의 아동 인구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으며, 이 중 3분의 2가 여성이다. 파키스탄은 성별 뿐 아니라 지역,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커다란 교육 불평등을 보이는데, 펀잡(Punjab) 지역의 경우 취학 연령 아동 17%만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반면 말라라의 출신지역인 스와트(Swat) 지역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여성 아동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 World Bank(2014)의 통계자료를 보면 교육 분야에 쓰이는 공공 지출이 GDP의 2.5%, 전체 문해율은 약 70% 정도로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 파키스탄의 교육적 이슈

1) 반미 정서와 이슬람 극단주의

파키스탄은 종교적 이유로 힌두교 국가인 인도와 분리되었고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일 정도로 이슬람 전통이 뿌리 깊은 국가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거둬들인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군부독재, 정부 공백 속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탈레반⁸⁾은 한때 파키스탄을 장악하고 파키스탄을 극심한 무력 공포 상황으로 빠뜨렸다. 언론과 문화 예술을 탄압하고 세계문화유산인 바미얀 불상을 파괴하는 등, 극단적인 이슬람 이념을 강요하면서 파키스탄 국민들의 일상 생활 모든 면에서 자유를 억압했다.

게다가 외부의 미국과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 그리고 그 사이 줄타기 외교를 하던 파키스탄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강한 반미 정서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더욱 부추겼다. ‘마드라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재벌들이 포진한 이슬람 재단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8) 탈레반: 탈립(Talib)은 파슈툰어로 마을 학교에서 책을 읽는 학생을 의미한다. 탈레반은 이슬람의 기초 위에 아프가니스탄을 재 건립하고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무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도시를 점령하고 1995년 권력을 잡았으나, 2001년 연합국의 군사력에 의해 패퇴했다.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 통치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나,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등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통성 있는 통치자로 인정받아왔다.

이슬람교 고등교육기관이다. 마드라사는 현대의 필수과목이 아닌 이슬람 교리를 중심으로 한 이슬라미야트를 가르쳤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파키스탄이 1947년이 아닌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온 것처럼 하거나, 힌두교도와 유대인을 매도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말라라, 램: 41). 파키스탄이 전시체제에 돌입하자 마드라사는 반미 정서를 등에 업고 많은 이슬람 청년들에게 극우 이슬람 교리를 세뇌시켜 이슬람 저항군을 양성했다.

2) 빈곤과 교육 인프라 부족

앞서 언급된 낮은 국내총생산(GDP)과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알 수 있듯, 파키스탄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빈곤은 개인적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파키스탄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파키스탄인들이 돈이 없어 학교를 못가고, 정부의 교육재정과 사회적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법적으로 무료 의무교육인 초등 학교마저도 그 수가 부족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교사의 양과 질이 낮았으며 교수 자료도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빈곤 문제는 많은 파키스탄 청년들을 극우 이슬람 교육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마드라사는 고아나 가난한 학생들도 받아들이고 숙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불우한 파키스탄 청소년들이 마드라사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마드라사의 교사들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고, 왜곡된 극우 이슬람 교리를 세뇌시켰으며, 가난한 청년들을 전쟁으로 내몰아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게 만들었다.

3) 여성의 교육권 탄압

특히 탈레반은 여성들의 교육을 전면 금지시키고 모든 여성들을 집안의 특정지역(푸르다)에 감금시켰다. 탈레반은 부르카⁹⁾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물론,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전면 금지시키고 심지어 집 밖에 여성이 혼자서, 혹은 여성들끼리 외출하는 것도 막았다. 남성이 특정 여성을 간통했다고 지목하기만 하면 여성을 유죄판결에 돌로 때려죽이게 하는 끔찍한 사형제도가 있었으며, 이를 막으려면 4명의 목격자를 데려와야만 했다. 여성이 다니는 학교는 모두 폐쇄시키고, 교육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폭파하거나 관련 교육자들을 암살했다(전게서: 133-165).

IV. 말랄라와 여성 교육 운동

1. 말랄라 교육 운동의 개관

말랄라는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밸리에 위치한 밍고라에서 파슈툰족 유사프자이 부족의 딸로 태어났다. 당시 파키스탄의 경제적 빈곤과 함께 교육 상황은 매우 열악했으나 열성적인 교육운동가였던 말랄라의 아버지는 학교를 설립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및 평화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말랄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현대식 교육을 받고 교육의 권리와 기쁨을 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그러나 탈레반 세력의 유입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가 거세지고 여성 학교 교육이 완전히 금지되면서, 말랄라는 아버지와 함께 이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다.

9) 이슬람 전통의상으로 여성의 얼굴과 온몸을 가리는 검은 옷이다.

각종 TV채널 및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인터넷에 글을 기고하면서 이슬람 여성의 학교 교육 권리를 전 세계에 호소하였다. 말랄라는 2014년 공동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영국에 머물면서도 여성학교교육의 기회 확대를 촉구하는 교육 운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녀의 여성 교육권 옹호 운동은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인권 향상을 통한 개발 도모를 이끈 한 예로 해석될 수 있다. 그녀는 파키스탄 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배경과 맞물린 여성의 교육권 침해를 외부사회에 고발하고, 내부적으로 정치인과 시민들의 의식 각성을 촉구했으며, 이로서 파키스탄 및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에 있어 인권, 특히 교육권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2. 말랄라의 교육 문제 상황과 대응

1) 빈곤에 대한 대응

말랄라가 활동했던 당시 파키스탄은 경제 수준은 턱없이 낮았다. 게다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1998년 파키스탄이 인도와 함께 핵실험을 하면서 미국은 원조를 거의 중단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 대부분의 국민들의 극심한 빈곤에 허덕였으며 말랄라가 태어났을 때도 전쟁에 부모를 잃고 쓰레기장에 사는 아동이나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비일비재했다.

은 좋게도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가 아닌 공립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현대 교육을 받았던 말랄라 아버지는 파키스탄 모든 문제의 근원이 교육의 부족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스스로 학교를 설립하고 남자와 여성에게 모두 평등한 현대 교육을 제

공했다. 초기의 극심한 재정난과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말랄라 아버지는 교육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중에 학교가 커진 후에도 무료로 빈곤한 학생들을 학교에 다니게 하고 본인의 집에 함께 살 수 있게도 도와주었다. 말랄라는 본인의 방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존경했다.

2)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라디오 방송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한 마울라나 파즐올라는 초기 바르고 교양 있는 이슬람 지도자인 척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 극단적인 이슬람 교리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다. 초기 많은 지역 주민들은 파즐올라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고 따랐으며, 나중에는 부당함을 알면서도 저항하지 못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중단시키며 “예방접종은 이슬람교 여자들을 불임으로 만들어 스와트 사람을 멸종시키려는 미국의 음모이다”, “발병도 하기 전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샤리아 율법과 맞지 않는다”(말랄라, 램: 143)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내세웠을 때도 지역 주민들이 믿고 따랐다는 것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한 무지와 낮은 사회비판의식의 결과이다.

특히 탈레반의 지역 장악과 함께 여성의 학교 교육은 아예 금지되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감금당하고 매를 맞거나 살해당했으며, 학교는 폭탄 공격을 받았다. 이때 파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묵인했다. 대다수의 스와트 주민들 또한 죽음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순응했다. 심지어 탈레반에 협조하여 가족의 젊은 남자를 군인으로 내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의식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저항하기 시작했다. 지역 사회 원로들이 “콰미 지르가” 모임을 결성하고 말랄라 아버지는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모으고 함께 행동했다. 탈레반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고 지역 신문에 글을 기고했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평화행진을 하고 학생들도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특히 테러 위협 속에서도 국제사회에 파키스탄의 현실을 알리고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호소했다. 말랄라 아버지는 여학교 운영을 멈추지 않았고, 말랄라 또한 아버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여성 교육의 권리에 목소리를 냈다.

3) 정치 혼란과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몇 년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지사를 보내 말랄라의 출신 지역인 스와트를 다스리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은 영국 식민지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이, 스와트를 발전시키기보다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고자 했다. 학교 운영에 방해하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하여 말랄라 아버지는 400여명의 학교 설립자들과 함께 “스와트 사립학교 연맹”을 세우고 시민 교육 운동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연대 행동 했다.

4) 잇따른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당시 파키스탄은 국내 정치 혼란뿐 아니라 심각한 자연재해도 겪었다. 2005년 지진¹⁰⁾, 2010년 홍수¹¹⁾가 그것이다. 파키스탄의 자연

재해 피해가 컸던 이유에는 지진 대비 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이유가 컸다. 이로써 많은 학교를 비롯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지역 주민들은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말랄라 아버지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과 함께 지역 사회의 안정화에 힘썼다. 자비로 땅을 파고 펌프를 설치해서 깨끗한 지하수를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구호자금을 모아서 음식과 구호물자를 제공했다. 또한 마르가 자르에서 지역 축제를 조직하여 지역 사회 정상화 및 지역 문화 부흥에도 힘썼다.

3. 지지자와 반대자

1) 말랄라 교육운동에의 지지 입장

파키스탄 내에서는 말랄라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던 지역사회의 동료 교육자 및 지식인들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말랄라 아버지의 교육 운동의 수혜를 받았거나 그 뜻을 존경하는 지역 주민들 역시 말랄라 아버지와 말랄라의 교육 운동을 지지했고, 말랄라의 학교 친구들 또한 말랄라를 응원했다.

국제사회를 향한 그들의 적극적인 호소 덕분에 파키스탄의 열악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전세계의 정치인과 유명 인사, 일반 시민들

10) 2005년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진도 7.6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아프가니스탄에 걸쳐 총 7만 4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만 6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11) 2010년 파키스탄에서는 대홍수로 1700여명이 숨지고 2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도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7월 12일 말랄라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로 초청하여 연설할 기회를 주고 이 날을 ‘말랄라의 날’로 정했으며 말랄라는 “우리들의 영웅”¹²⁾이라 불렸다. 파키스탄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말랄라의 수상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 파키스탄 총리 나와즈 샤리프는 “파키스탄의 자랑”이라며 말랄라의 행적을 칭송했다.¹³⁾

2) 말랄라 교육운동에의 반대 입장

지아 정권과 이슬람화 운동 이후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된 지역사회의 물라, 즉 이슬람지도자들이 말랄라 아버지의 교육 운동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그 예로 이슬람 학자 물라 굴라물라한드를 들 수 있다. 그는 “여학교는 하람이자 신성모독이다”, “여자는 위낙 성스럽기 때문에 푸르다에 격리된 채 살아야 한다”며 말랄라 아버지의 학교 운영을 방해했다(말랄라, 램: 113). 탈레반인 마울라나 파즐올라가 이 지역사회를 장악한 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말랄라 아버지 및 말랄라의 교육 운동에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파트와가 떨어지고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다가 결국 말랄라가 총격을 당했다.

말랄라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금도 파키스탄 내 말랄라에 대한 적대적인 비난은 아직 남아있다. 말랄라의 고향인 스와트 계곡의

12) 구정은, 윤승민. (2014). 17세 말랄라, 노벨평화상 최연소 수상... 탈레반 총탄에 꺾임 없이 여성교육의 꽃이 된 소녀. 경향신문, (2015년 4월 27일 접속), <http://news.khan.co.kr>

13) 광상아. (2014). ‘노벨평화상’ 말랄라에 대한 파키스탄의 반응 3. 허핑턴 포스트, (2015년 4월 28일 접속), <http://www.huffingtonpost.kr>

칼럼리스트 주바이르 토르왈리는 “말랄라에 대한 여론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많은 이들이 말랄라를 싫어한다”고 말했다.¹⁴⁾ 파키스탄 내 한 잡지사 ‘파키스탄 옵서버’(Pakistan Observer)의 편집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고, 서방세력의 음모”라며, 그녀를 “서방세력의 꼭두각시”로 몰아세웠다. 파키스탄의 청년 수 백 명은 말랄라는 파키스탄에 서구적 가치를 주입하기 위한 도구라는 메시지를 담은 ‘말랄라 드라마’ 해시태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BBC는 이러한 이유가 “파키스탄은 ‘서방은 이슬람의 적’이라는 오래된 인식과 종교가 공적 담화를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¹⁵⁾

4. 말랄라 활동에 대한 평가: 성공 혹은 실패

파키스탄 여성의 불평등한 학교 교육 기회를 전 세계에 알리고 아동의 교육권을 인식시켰다. 말랄라 사건을 계기로 여성 교육권 운동에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서명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교육권 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글로벌 교육특사였던 고든 브라운 전 영국총리는 2014년 ‘나는 말랄라(I am Malala)’라는 슬로건으로 2015년까지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17세의 나이(1997년생)로 세계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성의 동등한 학교 교육 권리 증진에

14) Saeed Shah. (2014). 탈레반 지도부, ‘탈레반 피격소녀’ 유엔 연설 맹비난. 월스트리트 저널. (2014년 12월 16일 접속), <http://kr.wsj.com>

15) 구정은, 윤승민. (2014). 17세 말랄라, 노벨평화상 최연소 수상... 탈레반 총탄에 꺾임 없이 여성교육의 꽃이 된 소녀. 경향신문. (2015년 4월 27일 접속), <http://news.khan.co.kr/>

기여'하였고, '교육 및 인권운동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한 주요 업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랄라의 여성교육운동과 활동은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으나 아직 실제로 파키스탄 교육 현장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다. 말랄라는 파키스탄의 첫 여성총리였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처럼, 나중에 총리가 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파키스탄 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권과 교육 기회가 침해되는 파키스탄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 파키스탄 핵실험으로 인해 세계 안보의 위협에는 파키스탄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을 했으나, 탈레반 치하 여성의 학교 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

V. 말랄라 사례가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1. 교육 의미의 확장 필요성 강조

1) 교육의 의미 확장

말랄라의 사례에서 보면, 빈곤이나 정치적 혼란기 등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학교는 단순히 교육받는 장소를 넘어 심리적 안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 늘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공포와 참혹의 시절”, 학교는 말랄라에게 “바깥세상의 공포를 피하는 안식처”로 묘사된다(말랄라 · 램: 163). 또

한 그녀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책을 읽고 숙제를 한다는 것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라고 언급했다(상게서: 175). Lynn Davis(2004)는 그녀의 저서 <교육과 갈등>에서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교육이 더욱 장려되어야 하는 이유로 다음의 7가지를 내세웠다; 1) 아동의 미래 준비 2) 일상 정상화 및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 3) 아동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제공 4) 미래의 갈등 예방 5) 희망 제공 6) 기술 습득 7) 교육 발전을 위한 기회도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인 교육의 좁은 의미를 넘어,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 확대 및 인간의 권리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보여 준다.

2) 여성 학교교육의 중요성 강조

본문에서 다룬 말랄라의 교육운동은, 파키스탄 내 학령기 아동의 학교 교육, 그 중에도 여성 아동의 동등한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가장 강조된다. 뿌리 깊은 이슬람 문화와 빈곤으로 파키스탄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교육 권리가 위축되어 있었으며, 특히 극단주의 이슬람 집단이 지역사회를 장악하면서 여성 교육권은 아예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말랄라는 파키스탄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이 부당함에 저항하고 온갖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중국의 국민적 지도자 마오쩌둥(1968)은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은 천하의 절반을 담당할 수 있다(婦女能頂半邊天)”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Amartya Sen(2008)도 그의 저서 <센코노믹스>에서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진국의 원조가 아닌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을 통해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능력 개발을 강조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 등에서도 여성의 동등한 교육권 확보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젠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3) 인권으로서 교육의 우선순위

‘교육은 가난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장기 전술’이라고 보았다(모르텐슨·렐린, 2006: 291). 이렇듯 과거에는 교육의 당위성을 경제성장 중심, 즉 소득 증대를 통해 개인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기능적 측면에 두었다. 반면에 오늘날 교육은 인간개발 중심, 즉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환식, 2004). 그러나 교육은 말 그대로 ‘장기 전술’이기 때문에 보다 즉각적인 위기, 예컨대 빈곤과 기아, 식수 부족, 안보, 보건, 위생 등에 직면해있는 경우 교육분야는 자금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그러나 교육은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은 인권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최소 수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소득과 자원의 공정한 재분배를 이끄는 바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권리이다.

2. 국제사회의 문화적 갈등과 다양한 국면에 대한 이해 강조

1) 극단주의 종교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모든 개인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오늘날의 공통된 원칙이다. 그러나 그 종교가 극단주의로 흘러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위배되고 지역 주민의 교육권을 탄압할 때, 국제사회가 이를 묵인할 수만은 없다.

김성건(2013)은 개인의 태도·행동과 종교 사이에 전통적인 연관이 존재하며, 종교가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발전에 관한 저항의 근원과 초점도 될 수 있다고 기술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 ‘발전’이 ‘근대화의 과정’과 동일시되었고 최근 들어 ‘발전’이란 개념을 물질적 복지, 건강, 교육 및 삶의 기회 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Sen, 1999), ‘발전’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출현 및 확대와 함께 생각해볼 수 없다. Casanova(1994)는 이슬람이 시민 사회와 민주적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논증했으나 오직 종교적 당국이 신정주의적 야심을 버리고 국가가 다원주의와 종교의 자유 혹은 무종교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이슬람교 사례처럼 한 사회에 뿌리깊은 종교가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인간의 교육 권리까지 침해하는 극단주의로 흐른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또한 Woodhead(2009)는 오늘날 이슬람의 많은 형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며, 서구적이고 세속적으로 인식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말랄라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반대하는 많은 이슬람교인들

은 말랄라가 서구사회의 노리개이며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사상을 자국에 침투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말랄라의 여성 교육 기회 확대라는 정당한 운동에 대한 가치 절하 및 반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렇듯 지역 사회 및 국가의 종교가 사회의 발전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저해할 때, 말랄라 가족처럼 자국 내부의 저항을 통해 극복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말랄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극단주의 종교가 팽배한 국가 내에서 의식 있는 소수의 개인이 다수의 뿌리 깊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로 말랄라 가족은 아직도 자국 내 거센 비판과 살해 위협을 맞고 있다.

2) 비민주적 정치 체제

현재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규정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변동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틀로 설명되어 왔다(엄한진, 2012). 실제로 대부분의 제3세계 신생독립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군사 쿠데타 및 잦은 정권 교체, 군부 독재 정치를 겪었다.

말랄라가 활동하고 있는 파키스탄도 비슷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으나, 그 배경에도 이슬람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특수성을 띤다. 엄한진(2012)은 이슬람 문화권의 현대정치사에서 ‘민주주의’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이념이기보다는 일부 서구적인 지식인들이나 소수파로서의 자유주의적 정치인들의 이념으로 남아 있었

다고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이슬람 문화는 제정일치(祭政一致)를 바탕으로 한다. Bergesen(2007)의 저서에 보면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구 지도자 사이드 꾸트브(Sayyid Qutb)는 “사회조직 및 정치체제는 이슬람법이 제시하는 처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코란은 우리의 헌법’이라는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의 구호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렇듯 절대적인 신의 주권에 입각한 종교 규범 및 종교 지도자의 힘이 시민의 힘으로 세워진 헌법과 정치인의 힘보다 강력한 경우,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자유 민주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파키스탄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비민주적인 정치 체제 아래서 교육권의 침해되거나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개인의 자유와 교육권을 일깨우는 교육과정을 넣을 수도 없다.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회에 접근할 때 그 사회의 정치 문화적 맥락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 및 국가가 정상적인 정치체제 손실과 대응

1) 국제사회 교육개입의 시기와 정도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구 유고슬라비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종청소 등 극심한 인권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미얀마(버마) 및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1948년 인류의 합의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문제가 더 이상의 국내관할권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로 인식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유엔과 국제인권협약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권개입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Lauren, 2003).

그러나 아직도 고문철폐, 여성 및 아동권리 보호, 국제난민보호, 소수민족보호 등 주요한 국제인권 현안들이 남아있으며, 유엔과 지역 인권기구, 국제앰네스티 같은 국제인권 NGO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개별 국가들의 인권현실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인권에 대한 과도한 국제개입은 국가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기반한 현재의 국제질서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인권레짐¹⁶⁾의 실행력에 제약이 된다(이원웅, 2011).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중요한 인권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교육권 박탈 및 교육의 질적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 정당성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어느 시기부터 어느 정도까지 한 사회의 교육문제에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합의나 논의가 없다. 말랄라에게서 보여지는 파키스탄 사례처럼 여성 교육을 반대하여 원리주의 종교집단이 여학교를 폭파하고 관련 교육자를 살인하는 극심한 교육인권 침해의 경우에도 아직 국제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만 높일 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및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성명을 내고 관련 NGO들이 국제적인 비평 여론 형성 및 사후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16) 국제인권레짐의 핵심적인 실행주체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이 중심으로 하는 유엔인권제도이다. 본래 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속하는 기능조직인 유엔인권위원 회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으나, 국제사회의 인권주류화에 대응하는 한편 과거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1994년 80만 명이 죽어간 르완다 사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면서 47개 이사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위한 개입은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2) 국제사회 교육개입의 주체

교육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구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로 유명한 UN이나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UNESCO), 난민교육과 관련한 국제난민기구(UHCR) 등이 있다. UN을 비롯한 OECD, World Bank, 그리고 UNESCO 등의 국제기구는 국제 NGO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한 개발전략을 기획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 데 교육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유성상, 2010).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교육 문제를 누가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주체가 없다. 이 중 교육 관련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는 UN 기구의 하나지만 UNDP나 IMF처럼 자금 조달 기구(funding Agency)도 아니고 연구소(Research Institute)도 아닌 유엔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전문산하조직(Specialized Agency)이다.¹⁷⁾ 매해 교육 관련 연구보고서를 내놓고 범국가적 교육권 확대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금 부족에 시달리며 도덕적 권위 외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유네스코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강력한 실행력을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Underhill, 2009).

17) 유네스코는 유엔의 산하기구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래 인적자원개발보다는 인간개발을 강조하는 기구이다. 유네스코의 정식 지위인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전문산하조직은 활동의 재량성은 큰 편이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을 통해서만 활동하며, 그 활동 결과를 경제사회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국가와 국제기구의 한계 및 시민 사회의 역할

파키스탄 내 교육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어느 국제기구도 제대로 상황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심지어 즉각적인 물자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한 파키스탄 난민촌에서조차 국제 사회는 제대로 된 구호를 하지 못했다. 그 예로 1999년 봄부터 여름까지 인도군의 폭탄과 로켓 25만발이 파키스탄에 쏟아지면서 통제선 부근에 위치한 마을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 이 난민들은 자국 내 스카르두로 피난을 왔으나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심지어 마실 물조차 없었다(Mortenson, 2009: 315).

정부는 사태를 처리한 재원이 부족했고, 유엔은 굴토리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게 있기 때문에 도와줄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례는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국제기구마저도 국제법적, 절차적 문제로 무기력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국제기구는 위기 상황에 바로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절차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말랄라는 민간 개인의 신분으로 국가 및 거대 국제기구들이 못했던 일을 해냈다. 이렇듯 시민 사회는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큰 영향을 받아 경직화된 국제기구 활동의 틈새를 메우면서, 보다 탄력적이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교육 상황 개선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개발(Development)’은 가시적인 경제성장으로

로 해석되어 왔다. 기존의 개발 수준은 국민총생산이나 개인소득의 증가, 산업화와 기술 진보 등으로 평가되었다. 탈식민주의를 거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동안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자 ‘선성장 후분배’ 논리 속에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은 개발도상국들을 국제적 사회 권력 구조의 고정적인 약자로 만들고, 전 세계적인 부와 자원의 불균형을 낳았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독재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수립 및 실행, 다수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빈곤과 인권 문제는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인권과 발전은 서로 다른 의미로 분리되어 인식되어 왔다. 인권이 도덕적, 정치적 영역 차원으로 여겨진 반면, 발전은 경제적 차원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과 발전은 인권 기반의 개발협력 접근(HRBAD)¹⁸⁾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강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자, 빈곤을 해결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현하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재평가 받고 있다. 1986년 채택된 발전권 선언에서 발전은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서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기반의 개발협력 접근은 개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에 기반한 ‘참여’와 ‘자력화’를 바탕으로 한다. 즉, 소득의 결핍으로 인식되어 왔던

18) 인권 기반의 개발협력 접근(HRBAD;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국제사회에 등장한 이래 인권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채택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 발전을 개인의 권리로 구성하고, 소수자 및 취약계층을 우선에 둔 발전의 필요성 및 인권증진과 자유의 신장을 주장한다.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인권의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다.

Amartya Sen(1999)의 <자유로부터의 발전>에서 빈곤은 단순한 소득의 결핍이 아닌 능력의 박탈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능력은 가치 있는 삶의 차원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즉 좋은 건강상태에 있는 것, 충분히 먹고 안전하게 있는 것, 교육받는 것,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등을 의미하며, 인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더 나아가 Sen은 능력 접근(Capability Approach)을 통해 경제적 자원의 부적절한 지배는 개인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의 결여, 즉 인간 존엄성을 위한 필요한 기본적 자유의 박탈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1986년 채택된 ‘발전에 관한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에서 발전을 인권으로 선언한 것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과정으로서, 전 인구와 모든 개인의 웰빙(wellbeing)의 지속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¹⁹⁾으로 규정된다(유성상, 이재준, 남유진, 2015).

이러한 점에서 말랄라의 운동은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의 한 예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랄라는 교육을 통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억압받던 파키스탄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단순히 한 인권 운동가 개인의 활동을 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참여의 풀뿌리 운동으로서 교육을 통한 자력적인 사회 발전을 갈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말랄라 자신이 직접 파키스탄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많

19) 발전에 관한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전문

은 인권 탄압을 겪었다. 그 중의 하나가 심각한 여성 교육권의 박탈이었으며, 이는 파키스탄 사회의 발전 저해했다. 말랄라는 시민사회의 한 개인으로서 이에 맞서 파키스탄 여성의 학교 교육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교육권 옹호 운동은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 접근(HRBAD) 맥락에서 풍부히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직도 말랄라에 대한 파키스탄 내부의 비난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말랄라는 무력으로 왜곡된 이슬람주의를 주입하려는 탈레반에 저항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과 인도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반응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에 서서히 물들어가던 파키스탄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판적인 눈으로 자신이 속한 파키스탄 사회를 바라보고 진정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행동했다. 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부와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세계 평화 확산과 진정한 질적 사회 발전의 해답이 어찌면 교육에 있음을 말랄라가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직 어린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된다.

참고문헌

- 그레그 모텐슨, 데이비드 올리버 렐린.(2009). **세 잔의 차**. 권영주 (옮김). 서울: 이레. [Mortenson, Greg. & Relin, David Oliver(2007). The Three cups of Tea: One Man's Maission to Promote Peace... One School At A Time. Penguin.]
- 김성건(2013). 종교와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종교사회학을 중심으로. **한**

국사학회사학회, 13(3), 95-117.

김환식(2004). **유네스코에서의 인적자원개발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말랄라 유사프자이, 크리스티아 램(2014). **나는 말랄라**. 박찬원 (옮김). 서울: 문학동네. [Yousafzai, Malala. & Lamb, Christia(2013). I am Malala: the girl who stood up for education and was shot by the Taliban. New York: Little, Brown, & Company.]

아마티아 센(2008).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원용찬(옮김). 서울: 갈라파고스.

엄한진(2012). 아랍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위상: 역사적 고찰. **기억과 전망**, 27(-), 250-292.

유성상(2010). 국제이해교육으로서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접근. **국제이해교육연구**, 5(1), 5-33.

유성상, 이재준, 남유진(2015). 역량기반 대학교육 담론의 한계 및 대안적 논의 탐색. **평생학습사회**, 11(2), 21-52.

이원웅(2011). 국제인권개입의 유형 및 특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함의. **신아세아**, 18(4), 78-101.

조성권, 장노순(2011). 미국의 빈 라덴 기습작전과 미국-파키스탄의 딜레마: 테러와의 전쟁과 정보협력의 한계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19(2), 441-485.

헬레나 노르베리-호지(2007).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양희승 (옮김). 서울: 중앙북스. [Norberg-Hodge, Helena.(1991). Ancient Futures: Learning from Ladakh. San Francisco : Sierra Club Books.]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반다나 시바(2006). **진보의 미래: 개발과 세계화, 생태환경, 그리고 세계의 미래**. 홍수원 (옮김). 서울: 두레. [Norberg- Hodge, Helena, & Shiva, Vandana. (2006). The Future of Progress: Reflections on Environment & Development. Devon, UK : Green Books.]

Aboott, Freeland(1968). *Islam and Pakista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Sen, Amartya.(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Bergesen, Albert J.(2007). *The Sayyid Qutb Reader: Selected Writings on Politics*,

Religion, and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asanova, Jose.(1994). *Civil Society and Religion: Retrospective Reflections on Catholicism and Prospective Reflections on Islam* Social Research 26(4): 1041-1080.

Schmitz, Hans Peter.(2012). *A Human Rights-Based Approach(HRBA) in Practice: Evaluation NGO Development Efforts*. Northea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44(4): 523-541.

Schor, Juliet B.(2004). *Born to Buy: The Commercialized Child and the New Consumer Culture*. Scribner.

Kane, Herbert.(1978). *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A Panoramic View of Missions from Pentecost to the Present*. Baker Academic; Rev edition.

Lauren, Paul Gordon.(2003).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Davies, Lynn.(2004). *Education and Conflict: Complexity and Chaos*. New York: Routledge.

Spain, James.(2009). *The Way of the Pathans*. Karachi: Oxford University Press.

UN.(2014).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Retrieved April 29, 2015 from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5527SR_advance%20unedited_final.pdf

UN.(2003). *The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Toward a Common Understanding Among UN Agencies*. Inter-Agency Workshop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 the context of UN reform. Retrieved Jun. 20, 2015 from <http://hrbaportal.org/the-human-rights-based-approach-to-development-cooperation-towards-a-common-understanding-among-un-agencies>

UNDP.(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The Rise of the South: Human Progress in a Diverse World*. Retrieved April 29, 2015 from <http://hdr.undp.org/en/2013-report>

UNDP.(2013).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The Rise of the South – Pakistan*. Retrieved Dec. 16, 2014 from <http://hdr.undp.org/sites/default/files/Country-Profiles/PAK.pdf>

UNESCO.(2012).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Education in Pakistan*.

Retrieved Dec. 16, 2014 from http://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ED/pdf/EDUCATION_IN_PAKISTAN__A_FACT_SHEET.pdf

UNICEF.(2003).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Programming*. Retrieved Jun. 20, 2015 from http://www.unicef.org/rightsresults/files/HRBDP_Urban_Jonsson_April_2003.pdf

Underhill, William.(2009). To list or Not to List?: world heritage status.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Retrieved Dec 18, 2014 from <http://jmagazine.join.com/newsweek/view/279985>

Woodhead, Linda.(2009). “Introduction: Modern Contexts of Religion” in Linda Woodhead, Hiroko Kwawnan and Christopher Parttridge(ed.). *Religions in the Modern World: Traditions and Transformations* (second edition). Routledge. 1-12.

World Bank.(2014).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April 28, 2015 from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ed-stats>

<자료>

위키백과. 파키스탄의 지리와 역사.

경향신문. 2014. 10. 10일자.

동아신문. 2015. 2. 2일자.

서울연합뉴스. 2015. 4. 14일자.

조선닷컴. 2014. 12. 17일자.

The Huffington Post. 2014. 10. 14일자.

Wall Street Journal. 2014. 10. 10일자.

Abstract

Exploring the Meanings of Malala's Struggles for the Right to Education in Pakistan

Yoo, Sung-S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heon, Seonhw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meanings of the struggles of Malala Yousafzai, the Nobel Peace Prize Laureate 2014, for the right to education and look into their implications on the education sector in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purpose, the study reviews the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contexts of Pakistan, and analyzes her various forms of resistance through her book and relevant documents. Malala has resisted for girls' rights to education under the turbulent political circumstances inside and outside against poverty and Islamic extremism which oppressed girls' education severely. Her courageous actions have contributed to fostering girls' schooling and putting more emphasis on education sector in development cooperation. Her struggles have also given multifaceted implications in regards to religious, political, and cultural conflicts that education sector in development cooperation might face, and the timing, level, and main actor issu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s educational interventions in a nation-state. Furthermore, Malala and her supporters has shown a great power of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cooperation whereas the international

society appeared rather helpless on the Pakistani issue at that time. The voices of criticism of Malala still exist within Pakistan. However, she has not been not swayed by the dominating social atmosphere of Islamic extremism and resisted for peace and justice with her own critical perspective. Malala's struggles for the right to education show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ts right directions to pursue, particularly when religious extremism and terrorism has been threatening world peace harder.

Key words : Nobel Peace Prize, Malala Yousafzai, Pakistan, Islam, Girls' rights to education,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투고신청일 : 2015. 04. 30

심사수정일 : 2015. 06. 27

게재확정일 : 2015. 06. 27